

“잃어버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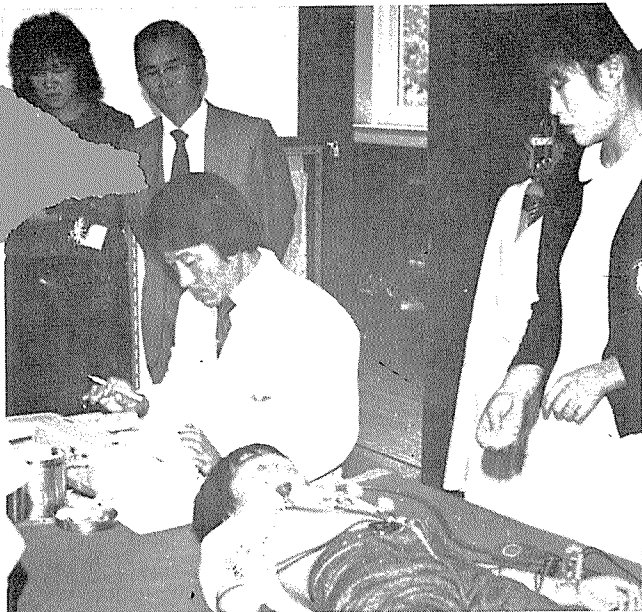
심장병 검진을

평소 몸이 약했던 강정숙양(16세서울K여중 3학년)은 국민학교때 심장이 약하다는 얘기를 들은 후 오랫동안을 운동이나 활동으로부터 제 외되어져 살아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 한번 갈 수 없었던 그녀의 삶은 아픔과 그 아픔을 원고지 위에 옮겨놓는 것을 희망으로 삼은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얼마전 건협외 건강관리 공개강좌에서 심장병에 대한 강의

심장질환



만큼 더 열심히 살리라”

통해 행복한 삶을 되찾은 **강정숙양**

를 듣고 견협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그녀는 뜻밖에도 보통사람과 똑 같이 활동해도 좋다는 진단을 받고 지금은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심장병의 관리 상태를 반성하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양의 집을 찾아가 봤다.

신문에서 서울지부 건강관리 공개 강좌 안내를 보고,

토요일 오후, 강정숙양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강양은 금방 학교에서 돌아와 책을 보던 중이었다.

약간 창백해 보일 정도로 하얀 그녀의 얼굴이 부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마침 집에 일이 있어 장사를 나가지않은 강양의 어머니 윤명희씨(45세, 행상)도 함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나이에 비해 많은 고생을 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생활인으로서의 강인함이 엿보였다.

강정숙양의 어머니 윤명희씨가 견협을 알게 된 것은 지난 5월이었다고 한다.

『우연히 신문에서 서울지부에서 실시하는 심장병에 관한 공개강좌를 한다는 걸 봤어요. 저야 뭘 아나요. 우리 정숙이 때문에 심장병은 늘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어요. 생활에 쫓기다보니 딸아가 정말 얼마나 아픈지조차도 신경쓸 틈이 없었으니…』

윤명희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우리 정숙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잘 먹지도 않고 감기에도 잘 걸렸었죠.』

그러나 당시 강양의 집은 당장 먹고 살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병 같은

것엔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한다.

『정숙이가 태어나던 해 애들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뜨고나서 아이들 셋을 먹여 살리는 일이 제게는 가장 커다란 일이었죠.』

신체검사때 심장이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행이랄까, 정숙양은 커가면서 그리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몸이 좀 약하다는 것 외엔 정상적인 아이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성장해 주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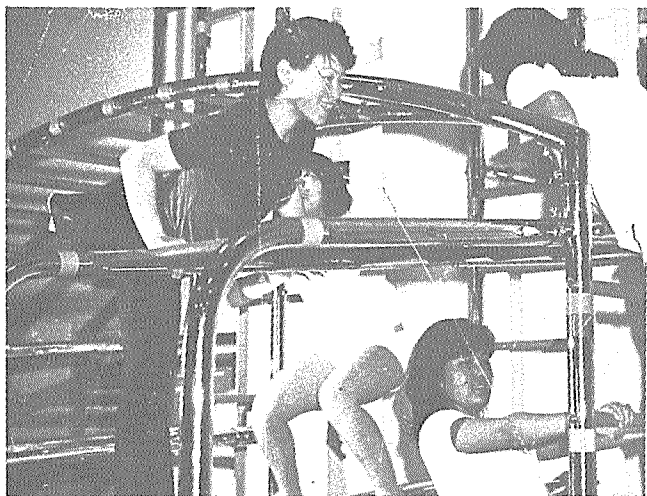
『국민학교 1학년 신체검사가 있는 얼마 후였어요. 양호선생님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기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그때 저는 왜 그러는지를 몰랐지만, 아마 그때 제 심장이 약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양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면서 침착하게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었다.

『그때 양호선생님께서 제게 우리 정숙이가 몸이 약한 것이 심장이 약한 때문인 것 같으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만도 벅찼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또 정숙이가 심하게 앓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읍니다.』

▶우연히 신문에서 심장병에 관한 공개강좌가 있다는 것을 보고 강양의 어머니 윤명희 씨는 견학을 찾아왔다.





◀체육시간은 물론이고,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항상 제외되어야 했던 강양의 학교생활은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러면서도 딸아이의 아픔으로 항상 고민하던 윤씨는 심장병을 앓은 아이들은 운동을 시키면 안된다는니하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다. 잘못하면 갑자기 마비되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힘겨웠던 학교 생활

『정숙이에게 절대로 운동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학교에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정화(정숙양의 언니)에게 정숙이를 꼭 데리고 다니도록 했습니다.』라고 윤씨는 말한다.

『전 그때부터 정말 힘겨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얼마동안은 체육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좋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그렇게 힘들수가 없었습니다.』라며 강양은 당시의 외로움을 말하기 시작했다.

『어찌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여 고무줄이나 피구를 할때면 저는 항상 당연히 제외되었어요. 조금만 힘든 일을 하려고 해도 주위에서 막무가내로 막았어요. 저도 할 수 있었는데, 왜들 이러나 싶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라는 그녀의 눈에는 잠시 눈물이 글썽였다.

그때부터 그녀의 성격은 내성적이 되었고, 남는 시간만큼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한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녀는 어머니 윤명희씨의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공부해 지금은 전교에서 10위권에 들뿐만 아니라 백일장 등에서도 많은 상을 탔다고 한다.

이렇게 정숙양의 아픔을 지켜만 보고있던 윤명희씨는 건협외의 공개강좌 기사를 보면서 혹시 정숙양에게 뭔가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5월 24일 건협을 찾았다고 했다.

『그때까지도 건협이 건강검사를 하는 곳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저 우리 정숙이에게 도움이 될만한 얘기가 있을까 싶어 답답한 마음으로 찾아왔죠』라면서 윤씨는 그날 장사를 나갔던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얻게 된 날이었다고 덧붙인다.

『그때 강사 선생님께서 심장병이라고 다 비싼 돈 주고 수술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운동을 못하도록 할 필요도 없다고 하시던 말씀, 그리고 그런 상태를 알기 위해선 반드시 검사를 해야한다는 말씀에 저는 귀가 솔깃했어요. 평소 크게 아파하지 않던 정숙이를 생각하며, 우리 정숙이에게 그런 행운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기도했었습니다.

마침 건협에서 건강검사를 싸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날 들었고, 정숙이를 한번 데려와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협에서 종합검사를……

그주 일요일 그녀는 정숙양을 데리고 건협을 찾았다. 심장검사 뿐만이 아니라 종합검사를 받도록 했다.



▶심장질환이라고 해서 항상 수술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후 정숙양의 가족은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 강양은 결과서를 받았다. 결과서에는 확실히 심장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들에게는 커다란 실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윤씨는 고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태라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견협을 다시 찾았다.

『관리의사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결과서를 보시고 재정밀검사를 받으도록 해주셨어요.』

재검사 결과, “활동해도 좋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유효했던 것일까. 재검사와 판독의의 진찰을 받은 강양은 심장이 약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진단이 떨어졌다. 운동도 심한 것이 아니면 할 수 있다고 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병자라는 그늘 속에서 살아온 10년 가까운 생활이 그렇게 억울할 수 없었어요.』 강양은 당시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시작된 인생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다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체육시간에 저도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라며 강양은 밝게 웃는다.

『통 말이 없던 애가 요즘은 많이 밝아졌어요. 워낙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요즘은 먹는 것이라도 제대로 해주려고 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오히려 건강해 지는 것 같기도 하구요.』라며 다정하게 정숙양을 바라보던 윤씨는 『정말 이런 행운을 안겨다 준 견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눈물을 글썽인다.

한편, 『정숙양의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 심장병 관리의 현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양과는 반대로 정말 운동 제한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죠.』

막연하게 어떤 것 같다가 아니라 확실히 병의 상태를 알고 적절히 조치해 주기 위해서라도 학생심장병 집단검사는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학교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이은희 글〉